

사도행전 21:1-17 (25-30분)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한다. (그들에게 너무 신성하거나 개인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2~25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라는 영의 지시에 따른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결박, 환난, 죽음)

반원들에게 만일 그들이 한번 가면 다시는 가족이나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 친구, 희생할 것이 많음)
-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게 되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제안 받음,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함)
- 그러한 것은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과 어떻게 비슷한가?
-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읽는다.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17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토론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집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 바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결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4, 10~12절 참조) (만류, 강권)
- 왜 친구들은 때때로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가? (사랑, 미래 예견)
-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바울은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3절 참조) (죽기를 각오함)
- 그것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 어떠한 것을 보여 주는가? (강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신뢰)
-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 바울의 결심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4절 참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 여러분은 진리의 편에 섰던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반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에게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윌리엄 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선택한 어떠한 것에서도 결국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가장 작은 부분 [1973년], 1쪽)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